

# 최지만, 극적 끝내기 역전의 주인공

MLB 디트로이트와 경기서  
9회 말 3-4로 끌려가는 상황 속  
2타점 적시타로 팀 승리 견인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이 9회말 극적인 역전 끝내기 적시타를 때려냈다.

최지만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에서 팀이 3-4로 끌려가던 9회말 1사 만루에서 중견수 방면으로 날아가는 2타점 끝내기 적시타를 때려냈다.

1-4로 끌려가다 8회말 토미 팜의 중월 투런포로 2점을 만회한 탬파베이는 9회말 상대 유격수의 실책과 윌리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를 만들었다.

캐빈 키어마이어가 번트에 실패해 플라이로 물러난 뒤 마이클 브로소가 내야안타를 쳐 탬파베이는 1사 만루의 찬스를 일궜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디트로이트 우완 볼펜 투수 조 히메네스를 상대했다. 최지만은 1볼-1스트라이크에서 히메네스의 3구제 체인지업을 노려쳐 짜릿한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냈다.

최지만은 끝내기 안타를 친 후 헬멧을 집어 던지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지만은 8회말 마이크 주니노 대신 타석에 들어섰다. 8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풀라냈으나 후속타자 에릭 소가드의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됐다.

1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을 기록한 최지만은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57에서 0.260(312타수 81안타)으로 올라갔다.

전날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연장 13회까지 가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에서 9회말 극적 끝내기 안타를 치고 기뻐하고 있다. 최지만은 8회 말 대타로 나서 3-4로 추격하던 9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때려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는 혈투 끝에 브로소의 끝내기 안타로 1-0 승리를 거둔 탬파베이는 이를 연속 끝내기 승리를 챙겼다. 2연패 뒤 2연승을 달린 탬파베이는 73승째(52패)를 수확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탬파베이가 이를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MLB닷컴은 "탬파베이는 올 시즌 홈 구장에

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8회까지 패색이 짙었다"며 "하지만 9회 최지만이 영웅의 역할을 해냈다"고 그의 활약을 부각시켰다.

최지만은 "팀이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즐겼다가보다는 긴장을 많이 했다.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점수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각을 했다. 최

소한 동점이라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와 오늘 투수들이 무척 잘 던졌고, 점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타선이 경기 초반 점수를 내지 못해 투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 내년 IAU트레일런 국대 선발전 '우승'

정읍시청 김성익씨  
루마니아 대회 참가

정읍시청 김성익씨가 2020년 IAU트레일런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KUMK 주관 '2019 양양트레일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일군 결과다.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12시간 내로 완주하면서 3위안에 들어야 한다. 김성익씨는 11시간 32분 1위로 끝인, 당당히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씨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내년 4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되는 IAU트레일런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양 트레일런 대회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대회에는 43km와 60km, 101km 3종목에 244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씨는 양양 문화복지회관을 출발해 한계령 자락 101km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했다. 10km 간격으로 9개 CP(체크 포인트)가 있으며 각 CP마다 제한시간이 정해져 있고 최종 제한시간은 20시간이다.

김씨는 최근 폭우로 인해 낙석과 패인 웅덩이, 쓰러진 나무 등 주로 상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곳곳이 달렸다. 특히 임도와 절벽의 경계 구분이 어렵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는 5미터가 채 안 되는 약조건 속에서도 국가대표에 선발되겠다는 의지로 이를 극복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탁구실력 도모의 장... 무주서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회

초·중·고, 대학·일반부 등 선수 655명 106팀 참가  
22일까지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등 경기 치러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개막식이 19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한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전북도의원, 그리고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을 비롯한 선수와 관중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대회가 탁구발전과 선수여러분의 실력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탁구 역시 여러분과 이

번 대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 스포츠로, 열광하며 함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는 탁구선수들이 자주 와서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하는 탁구전도도시"라며 "이번 대회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라도 오셔서 탁구 실력도 키우고 무주도 즐겨주시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탁구대회에는 남녀 초·중·고·대학생부와

일반부 선수 등 총 106팀 655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단체전과 개인단식, 개인복식 경기에 뛰며 실력을 겨룬다.

선수들은 "큰 대회라 긴장도 되지만 예전에 무주에 와서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덜 떨리는 것 같다"라며 "경기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는 2019년도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수(청소년)들이 무주에서 하계 합숙훈련을 했으며 반딧불 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가 치러져 탁구인들의 관심이 무주로 쏠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